

제118호(2015. 12. 18.)

# 닭고기 수급 불균형과 파급 영향

우병준 김형진



1. 닭고기 수급 현황 및 전망 .....	1
2. 닭고기 수급 불균형 원인 검토 .....	5
3. 수급 불균형에 따른 파급 영향 .....	11
4. 결론 및 시사점 .....	14

감 수	김홍상 선임연구위원	061-820-2236	hskim@krei.re.kr
내용 문의	김형진 연구원	061-820-2286	junjang00@krei.re.kr
자료 문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http://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요약

- 우리나라의 도계 마릿수는 매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도계 마릿수는 사상 최대 수준인 9억 6,127만 마리로 예측됨. 이러한 증가세는 2016년에도 지속되어 내년 1~8월 도계 마릿수는 올해보다 5.0%, 평년보다 22.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 결과 육계 산지가격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지속적인 닭고기 공급 증가로 인해 2015년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5.8%, 평년보다 17.4% 하락한 kg당 1,483원으로 전망되며, 2016년에는 더욱 하락할 것으로 보임
  - 그동안 HPAI 발생으로 금지되었던 미국산과 태국산 닭고기 국내 수입이 재개될 경우 산지가격 하락폭은 더욱 커질 수 있음
- 닭고기 공급 과잉의 주된 원인은 계열 업체의 경쟁 심화, 닭고기 소비 정체, 종계 공급 부족을 우려한 계열 업체들의 단기간 종계 입식 급증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대규모 닭고기 계열업체 신규진입이 계속되면서 업체 간의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한 경쟁이 거세짐. 그 결과 2011~2014년 기간 동안 주요 계열업체의 도계 마릿수는 연평균 6.4% 증가하고 닭고기 공급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남. 반면 닭고기 소비량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 상태를 보여 업계의 닭고기 냉동재고도 증가하고 있음
  - 금년 하반기의 종계 부족 가능성을 우려한 업체들의 종계 확보 경쟁으로 인해 금년 종계 입식 마릿수는 평년보다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닭고기 공급 과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과 경쟁 심화로 인해 계열업체의 영업이익 급감과 중소기업 폐업이 발생함. 또한 위탁 사육농가에게도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는 현장 의견이 나타남
  - 2015년 3분기 기준 주요 상장 계열업체 영업이익 모두 적자를 기록함
  - 농가 대상 설문 결과, 위탁수수료 인하, 육계 비품 처리 증가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경영비 증가 부담을 모두 농가에게 귀속시킨다는 불만이 조사됨
- 업체 간 경쟁 심화로 발생한 닭고기 공급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과 닭고기 소비 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 위탁사육 농가와 계열업체 간의 상생협력 노력이 필요함
  - 계열업체 간의 과도한 경쟁보다는 자율적인 생산 조절을 통한 입식 및 사육규모 감축과 닭고기 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전략 수립이 필요함
  - 발생 가능한 위탁 사육농가 피해 방지를 위한 상생협력 노력과 제도 보완이 필요함



# 1. 닭고기 수급 현황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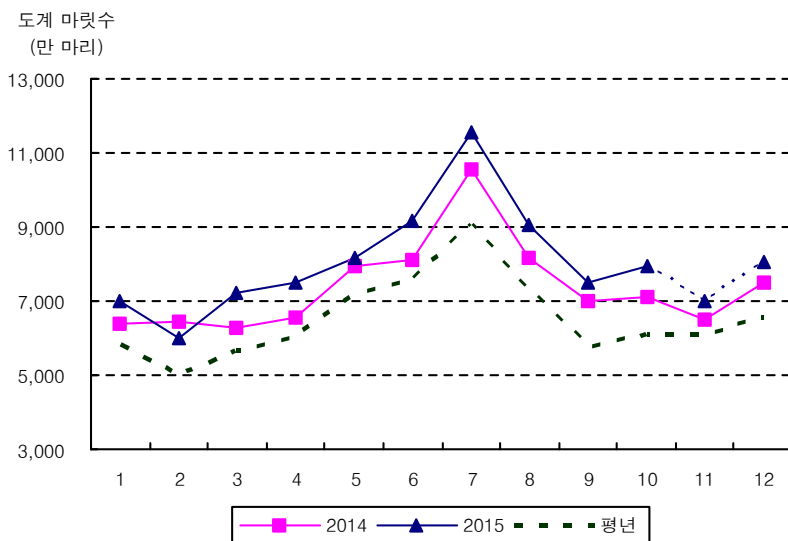
## 1.1. 닭고기 수급 및 가격 현황

### □ 2015년 총 도계 마릿수 사상 최대 수준인 9억 마리 돌파 전망

- 국내 도계 마릿수는 1990년 1억 4,754만 마리에서 연평균 7.8% 증가하여 2014년 8억 8,551만 마리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도계 마릿수는 2010년에 7억 마리, 2014년에 8억 마리 돌파 후 불과 1년 만인 2015년에 9억 마리 이상일 것으로 전망되어 최근 5년간 매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15년 1~10월까지 도계 마릿수는 8억 1,108만 마리로 전년 동 기간 대비 8.8% 증가하였음. 11~12월 도계 마릿수도 전년보다 7.2% 증가하여, 2015년 총 도계 마릿수는 전년보다 8.6% 증가한 9억 6,127만 마리로 전망됨

“  
 금년 총 도계 마릿수  
 사상 최대인 9억 마리  
 돌파 전망  
 ”

그림 1. 2015년 도계 마릿수 현황



주: 11~12월 도계 마릿수는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

금년 연평균 육계 산지가격 전년보다 6%, 평년보다 17% 하락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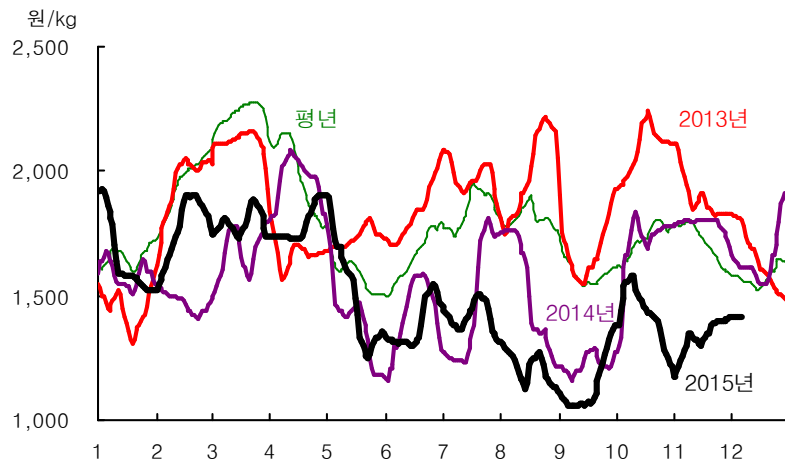
”

- 2015년에는 2월을 제외하고 모든 달의 도계 마릿수가 전년보다 증가하였음. 특히 도계 마릿수가 연중 가장 많은 7월의 경우 2014년에 1억 550만 마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지만, 2015년에 1억 1,552만 마리를 기록하여 다시 최고치를 경신함

□ 2015년 연평균 육계 산지가격 전년보다 6%, 평년보다 17% 하락한 kg당 1,483원 예상

- 닭고기 공급 증가로 2015년 11월까지의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5.5% 하락, 평년보다는 17.6% 하락한 1,480원/kg 수준임. 연중 육계 산지가격이 가장 높은 7~8월 가격이 1,500원 이하로 형성되었으며, 9월에는 2007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1,118원을 기록하였음
- 금년 12월 도계 마릿수도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을 밑도는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2015년 연평균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5.8%, 평년보다 17.4% 하락한 kg당 1,483원으로 예상됨

그림 2. 육계 산지가격 동향



주: 평년은 2010~14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협중앙회(5일 이동평균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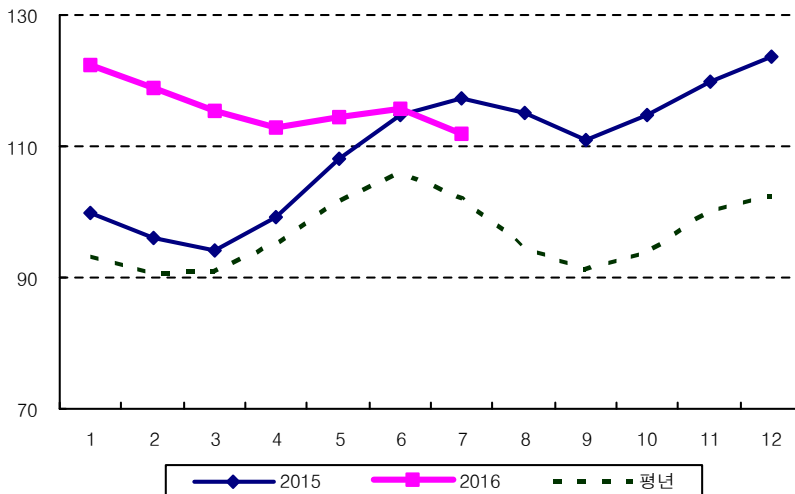
## 1.2. 2016년 닭고기 수급 전망

### □ 병아리 생산 잠재력 지수가 높아 2016년 상반기 도계 마릿수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육용 종계 입식 자료를 이용하여 병아리 생산 잠재력을 추정한 결과, 2015년 11~12월 병아리 생산 잠재력 지수는 상승세를 보이며, 전년보다 평균 17.1%, 평년보다는 20.3%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 2016년 1~7월 생산 잠재력 지수는 전년 동 기간에 비해 평균 12.1% 높은 것으로 분석됨. 특히 1~3월 잠재력 지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각각 22.3%, 23.6%, 22.7%, 평년 대비 각각 31.3%, 31.0%, 27.0% 높게 나타남
  - 병아리 생산 잠재력 지수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국내 실용계 병아리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임

그림 3. 병아리 생산 잠재력 지수

병아리 생산잠재력 지수  
(2015년 1월 = 100)



주: 평년은 2010~2014년 5개년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 2016년 1~8월 도계 마릿수는 전년보다 5.0%, 평년보다 22.9% 증가한 6억 8,946만 마리로 전망됨. 특히 2~3월 도계 마릿수는 전년보다 두 자릿수 이상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높은 병아리 생산 잠재력으로 내년 상반기 도계 마릿수 큰 폭으로 증가 전망

”

- 여름철 성수기인 6~8월 도계 마릿수는 전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평년에 비해서도 평균 20.5% 증가한 수준이기 때문에 2015년과 같은 공급 과잉이 예상됨

표 1. 2016년 상반기 도계 마릿수 전망

단위: 만 마리,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합계
2016년(A)	7,805	6,706	8,046	8,026	8,435	9,222	11,270	8,812	68,946
2015년(B)	7,003	5,981	7,206	7,503	8,185	9,182	11,552	9,062	65,674
2014년	6,373	6,460	6,270	6,561	7,918	8,123	10,550	8,175	60,430
평년(C)	6,098	5,448	5,943	6,284	7,521	7,819	9,700	7,284	56,097
(A)/(B)	2.7	11.4	12.1	11.6	7.0	3.1	0.4	-2.8	5.0
(A)/(C)	17.9	22.3	36.0	33.3	16.4	21.0	19.6	21.0	22.9

주: 평년은 평년은 2011~2015년 5개년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  
 도계 마릿수 증가로  
 내년 육계 산지가격  
 지속적인 하락 전망  
 ”

□ 도계 마릿수 증가와 함께 미국산, 태국산 닭고기 수입 재개될 경우  
 수입량 급증으로 내년 상반기 육계 산지가격 지속적인 하락 전망

- 2015년 11월 4일 ‘지정검역물의 수입 금지지역’ 고시 일부 개정안을 정부에서 행정 예고했음. 이는 HPAI 발생으로 수입이 중단되었던 미국산 닭고기의 국내 수입이 재개될 것임을 의미함
  - HPAI 발생 이후 1년간 수출하지 못하고 재고로 보관 중인 미국산 냉동 닭고기가 많이 있으며, 국내로의 저가 덤핑 판매 가능성도 커 향후 우리나라로의 수입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태국산 냉동 닭고기도 현재 우리나라로의 수출 재개를 위한 현지 실사와 수입위생조건 조율만이 남은 상태임. 국내 수입이 재개될 경우, 지리적 이점을 가진 태국산 닭고기의 수입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상반기 도계 마릿수 증가에 따라 육계 산지가격은 금년보다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여기에 닭고기 수입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산지가격 하락폭은 금년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됨
  -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 발생할 수 있으나 닭고기 재고량이 많기 때문에 가격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임



## 2. 닭고기 수급 불균형 원인 검토

### 2.1. 닭고기 계열업체 경쟁 심화

#### □ 대규모 닭고기 계열업체 신규 진입 계속되면서 업체 간 경쟁 심화

- 기존 계열업체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과정에 최근 들어 신규 업체 진입이 계속해서 발생함
  - 2011년 (주)사조인티그레이션이 육계 계열화 사업에 신규 진입함. 사업 초기 시장점유율은 1.9%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에 삼계 전문 생산 업체를 인수합병하여 (주)사조화인코리아로 사명 변경한 후 2014년 시장 점유율은 5.2%로 확대되었음
  - 2013년 (주)참프레가 육계 계열화 사업에 신규 진입하여 4.2%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였음. 2014년에는 진입 1년 만에 7.4%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업계 4위로 도약함

표 2. 주요 계열업체 도축장 도계 마릿수 동향

단위: 천 마리,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10월	평균 증감률
하림	159,347	164,014	158,269	177,747	158,628	3.7
올품	79,919	77,580	69,483	70,583	64,423	-4.1
참프레	-	-	33,620	65,906	62,611	96.0
동우	70,916	73,446	58,282	70,000	61,344	-0.4
체리부로	54,423	62,081	62,749	62,713	62,457	4.8
마니커	73,448	68,547	42,689	50,303	46,271	-11.9
사조	14,143	21,226	28,372	46,249	41,300	48.4
성화식품	21,522	22,712	24,447	26,665	27,351	7.4
주요 업체 도계(A)	473,718	489,606	477,912	570,165	524,385	6.4
전체 도계(B)	759,610	787,958	791,155	885,324	811,078	5.2
A/B(%)	62.4	62.1	60.4	64.4	64.7	-

주: 연평균 증감률은 2011~2014년 연평균 증감률(단, 참프레는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대규모 계열업체의 신규 진입으로 경쟁이 심화하기 시작한 2013년을 기점으로 국내 전체 도계 마릿수 중 주요 계열업체의 도계 마릿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60.4%에서 64.7%로 4.3%p 증가함

“

닭고기 계열업체  
 신규 진입 계속되며  
 시장점유율 경쟁 심화  
 및 닭고기 공급 증가

”

“

국내 닭고기 소비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고 정체 상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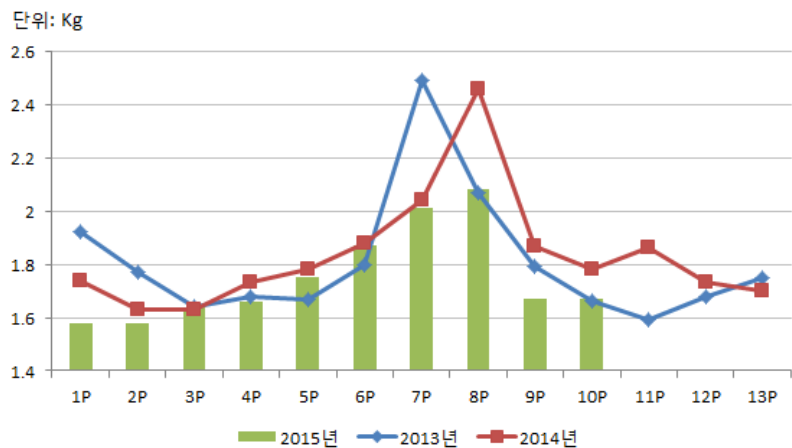
- 2011~2014년 기간 동안 국내 도계 마릿수는 연평균 5.2%씩 증가 하였으나, 계열업체가 소유하는 주요 8개 도축장 작업 물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6.4%를 기록했음. 따라서 대형 계열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계열업체 간의 시장 점유율 경쟁이 확대되면서 계열업체의 도계 작업 물량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국내 전체 도계 마릿수 증가로 연결되어 국내산 닭고기 공급량 증가로 연결됨

## 2.2. 닭고기 소비 정체 상태

### □ 닭고기 생산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량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정체 상태에 머무름

- <그림 4>와 같이 2015년 40주차까지의 가구당 닭고기 구매량은 2013과 2014년의 1.85kg에서 5.6% 감소한 1.75kg에 머물렀음
  - 이러한 닭고기 구매량 감소는 닭고기 성수기인 북경기(7~9P) 기간의 구매량 감소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됨

그림 4. 가구당 4주 평균 닭고기 구매량 추이



주: 1P는 4주를 의미함  
자료: Kantar Worldpanel Korea

□ 닭고기 소비가 생산량 증가에 못 미쳐 계열업체의 닭고기 냉동재고 증가세에 있으며 2016년에도 이런 추세 지속될 전망

- 닭고기 소비는 정체되어 있으나 생산량의 증가로 계열업체 냉동 비축물량이 전년보다 증가함. 2015년 11월 22일 기준 비축물량은 전년보다 24.8% 증가한 1,270만 마리임
  - 냉동 비축물량 중 미절단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절단육은 전년보다 176.4% 증가하였으며, 삼계는 69.1%, 부분육은 17.7%가 증가하였음

표 3. 계열업체 냉동 비축 현황

단위: 만 마리, %

구분	미절단	절단	부분육	삼계	계
2015년	174	145	673	278	1,270
2014년	230	53	572	164	1,018
증감률	-24.2	176.4	17.7	69.1	24.8

자료: 한국육계협회

- 2016년에도 닭고기 소비가 증가할 요인은 없는 것으로 예상됨. 업체들은 신제품 개발과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확대 등으로 닭고기 소비 증진을 꾀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닭고기 소비를 증가시키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

닭고기 공급 과잉으로  
계열업체의 닭고기  
냉동재고 증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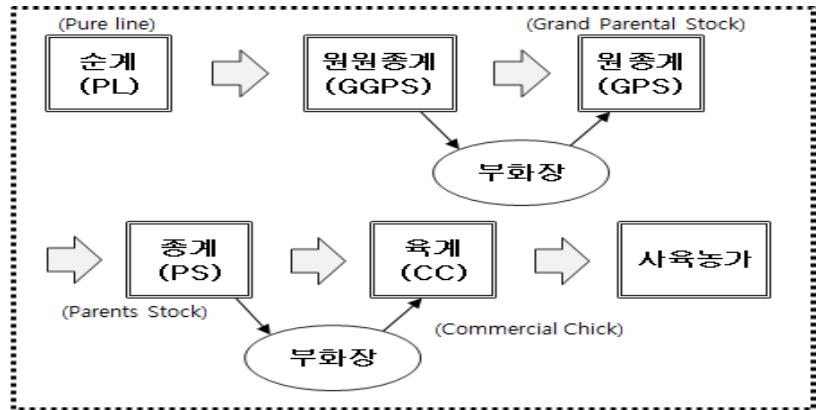
2.3. 종계 부족 우려로 업계의 단기간 종계 입식 급증

□ 육계 종계와 실용계 생산에 필요한 원종계는 전량 해외에서 수입

- 1980년대까지는 산란계 및 육용 원종계를 육성·보급하는 국내 업체들이 있었으나, 현재는 원종계 병아리를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음. 과거에 대형 계열화업체들이 원종계 업체들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종축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국내 육용 원종계 생산이 중단됨
  - 원종계(Grand Parents Stock: GPS)는 종계(Parents Stock: PS)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되는 닭을 의미함. 원종계에서 부계와 모계를 각각 생산하고, 이들의 교배를 통하여 종계를 구성함. 종계는 농가에서 사육하는 실용계(Commercial Chick: CC)를 생산함

- 원종계 병아리가 국내에 수입된 이후 실용계 병아리가 생산되어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소요되는 최단 기간은 약 17개월임

그림 5. 실용계 병아리 생산 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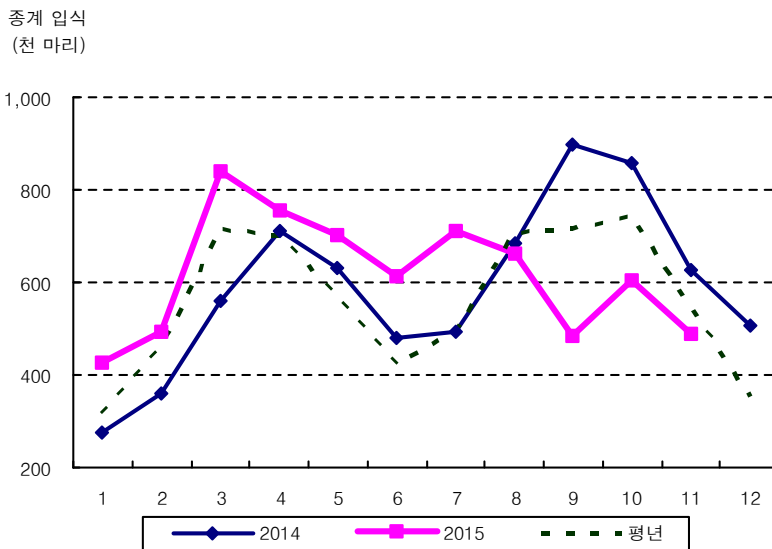
“  
HPAI 발생으로  
원종계 수입 중단,  
국내 종계 부족으로  
실용계 생산 차질  
우려 발생

”

- 2014년 미국과 영국 HPAI 발생으로 육용 원종계 국내 수입 중단
    - 2014년 11월 영국의 HPAI 발생으로 영국산 가금류 및 가금제품의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으나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2015년 5월 6일 수입 재개되었음. 그러나 동년 7월 10일 랭커셔지방의 산란계 농장에서 HPAI가 다시 발생함에 따라 7월 14일 자로 수입금지 조치되어 현재까지 계속됨
    - 2014년 12월 미국 서부 오리건주에서 HPAI가 발생하여 12월 20일 자로 미국산 가금류 및 가금제품이 수입금지 조치됨. 이후 2015년 4월 5일 미네소타, 4월 23일 아이오와에서 HPAI가 추가 발생함. 6월에도 추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미국산 가금류 및 가금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는 해제되지 않았음
  - 2015년 하반기 심각한 종계 부족 현상이 예측되었으나 상반기 종계 입식이 크게 증가하고 종계가 직수입되면서 전년 수준 전망
    - 영국과 미국의 HPAI 발생으로 2014년 말과 2015년 초에 예정되었던 원종계 입식이 지연되었음. 또한 2015년 상반기에 입식된 원종계가 3만 7천 마리로 전년 동기보다 크게 감소하였음

- 따라서 업계는 2015년 하반기 종계 병아리 생산 감소가 더 확대되어 2015년 종계 병아리 총 공급량은 수요량의 66.2%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함. 그 결과 심각한 종계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 각 계열업체들의 2015년 상반기 종계 입식이 경쟁적으로 매우 크게 증가함
- 이 과정에서 종계 부족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원종계 도태가 늦춰졌으며, 2015년 7~11월 기간 동안 프랑스에서 신규로 50만 3천 마리의 종계가 직수입되었음
- 업체들의 경쟁적인 상반기 종계 입식 증가와 종계 직수입 등으로 인해 2015년 1~11월까지 종계 입식 마릿수는 전년 동 기간(660만 6천)에 비해 오히려 2.6%, 평년(634만 3천)보다 6.9% 증가한 678만 마리에 달했음

그림 6. 2015년 육용 종계 입식 동향



자료: 대한양계협회

- 12월에는 28만 마리 수준의 종계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5년 종계 입식 마릿수는 706만 1천 마리로 전년(707만 9천)과 비슷한 수준이며, 평년(672만 9천) 대비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종계 부족 가능성에  
대비한 종계 입식과  
종계 직수입 급증

”

- 수급균형을 이룰 수 있는 종계 입식 마릿수는 연간 약 650만 마리로 언급되나, 계열업체의 경쟁 심화로 인해 2013년 이후 매년 700만 마리 이상이 입식되어 구조적인 닭고기 공급 과잉이 발생함

표 4. 2015년 종계 병아리 입식 전망

단위: 천 마리

구분	국내 생산 종계 마릿수(A)	생산 가능 종계 마릿수(B)	직수입 종계 마릿수(C)	총 입식 마릿수 (A+B+C)
1월	428	-	-	428
2월	495	-	-	495
3월	839	-	-	839
4월	756	-	-	756
5월	700	-	-	700
6월	612	-	-	612
7월	596	-	114	710
8월	614	-	50	664
9월	462	-	22	484
10월	428	-	177	605
11월	348	-	140	488
12월	-	280	-	280
합계	6,278	280	503	7,061

주: 12월은 입식 마릿수는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  
2013년 이후  
종계 입식 과잉으로  
구조적 수급불균형  
지속  
”

### 3. 수급 불균형에 따른 파급 영향

#### 3.1. 계열업체 영업이익 급감

- 계열업체 시장점유율 경쟁 심화하면서 닭고기 공급 과잉 발생, 소비 정체되며 업체 영업이익 급감
  - 육계 계열업체 신규 진입 발생으로 업체 간 시장점유율 경쟁이 심화되고 이는 닭고기 소비량 수준을 넘어서는 공급 과잉으로 이어짐. 그 결과 계열업체의 닭고기 냉동재고량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 2015년 3분기 기준 주요 상장 계열업체의 영업이익은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표 5. 주요 계열업체 영업이익 추이

단위: 천만 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3분기
하림	1,142	-120	-226
동우	1,249	652	-172
마니커	-19	-899	-255

자료: 금융감독원

계열업체 경쟁 심화로  
영업이익 급감,  
중소 업체 폐업과  
위탁농가 피해 발생

- 닭고기 계열업체 간의 경쟁 심화로 중소기업 폐업사례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농가 피해도 발생
  - 2014년 기준 시장 점유율 2.7%였던 중소 계열화업체 (주)청정계가 닭고기 계열업체 간 경쟁 심화로 인해 경영실적이 악화되면서 2014년 11월 6일 최종 부도처리됨
  - (주)청정계 부도 이후 해당 위탁사육 농가에 대한 사육비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피해 농가에 대한 현실적 보상 및 구제방법이 없어 위탁사육 농가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앞으로 해결책 수립이 필요한 현안으로 대두됨

“  
 닭고기 공급 과잉  
 피해가 농가에게로  
 전가된다는 불안 존재

”

### 3.2. 위탁 사육농가 피해 발생 설문 결과<sup>1)</sup>

- 육계 공급 과잉에 따른 수급 불균형과 계열업체 경쟁 심화에 따른 중소기업 폐업 발생 등으로 인해 육계 위탁사육 농가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이 청취되었음. 이에 따라 육계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기간: 2015년 9월 14일~10월 16일
  - 조사대상: 육계 사육농가 116농가
  - 조사방법: 개별면접조사, 전화인터뷰 등(대한양계협회 위탁)
- 설문 응답 농가 중 현재 계열업체와 계약 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는 전체 95.3%로 나타남
  - 응답농가 지역별로 충남지역 육계 사육농가가 36농가(31.3%)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24농가(20.9%), 경북 15농가(13.0%), 전남 11농가(9.6%) 순임
  - 육계 사육농가의 평균 연령은 57.9세였으며, 평균 육계 사육 경력은 18.7년으로 조사됨
- 계열업체 간 경쟁 심화에 따른 닭고기 공급 과잉 피해 일부가 위탁사육 농가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설문 응답 결과
  - 계열업체 간의 과당경쟁에 따른 닭고기 과잉생산으로 인해 육계 산지가격이 크게 하락함. 이에 따른 계열업체의 영업이익 감소 피해 일부분을 위탁수수료 인하, 육계 출하 후 비품<sup>2)</sup> 처리 비중 증가 등의 형태로 위탁사육 농가에 전가하고 있다는 응답이 있음
  - 농가 설문조사 결과, 농가가 위탁사육을 통해 계열업체로부터 지급 받는 위탁수수료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하되었다는 답변이 많았음
    - 설문 응답에 따르면 2012년(100)을 기준으로 위탁수수료는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2015년 89.8로 10.2% 감소하였음

1) 이 조사결과는 농가 대상 설문 조사 결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현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2) 육계 비품은 농장에서 사육 중 질병 또는 피부손상 및 착색불량, 기형이거나 상처 과정 중 골절 또는 멍에 의해 상품성이 저하된 도계육 제품을 의미함



- 설문 응답자 중 67.9%가 과거보다 위탁수수료가 인하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기존 수준 유지는 23.1%, 인상은 9.0%였음

표 6. 농가 위탁수수료 변화추이(지수)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위탁수수료	100	95.6	92.5	89.8

자료: 농업관측센터 설문조사 결과

- 시설이 현대화되고 농가의 사양기술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비품 발생이 감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열업체의 비품처리 비중이 증가하여 농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응답이 있음
  - 설문조사 결과, 2012년(100)을 기준으로 비품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112.6으로 응답되었음
  - 설문 응답자 중 58.0%가 과거보다 비품 비중이 증가했다고 응답하였으며, 감소는 29.0%, 기존 수준 유지는 13.0%로 조사됨

표 7. 비품비중 변화추이(지수)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비품 비중	100	104.2	107.6	112.6

자료: 농업관측센터 설문조사 결과

- 금년 농가 사육경비는 2012년에 비해 17.6% 증가하였으나 계열업체가 보수지급을 위한 상대평가를 실시하면서 경비 증가분과 육계 출하 시 상차비용, 이동거리에 따른 추가 운송비 등을 농가에 부담시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문 응답이 있음
  - 설문 응답자 중 56.2%가 과거보다 사육경비가 증가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감소는 27.4%, 기존 수준 유지는 16.4%로 조사됨

표 8. 사육경비 변화추이(지수)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사육경비	100	105.7	109.7	117.6

자료: 농업관측센터 설문조사 결과

- 또한 위탁수수료 미지급, 병아리와 사료 품질 하락, 입추 지연, 사료 기준요구율 인하, 출하 지연, 운송료 인상, 보상보험처리 미흡, 수당 미지급 등으로 많은 농가에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문 응답이 있음

“

위탁수수료 인하, 비품 비중 및 농가 경영비 부담 증가에 대한 농가 불만 발생

”

“  
 닭고기 공급 과잉  
 해결을 위한 업계의  
 자율적 노력 필요  
 ”

#### 4. 결론 및 시사점

##### □ 2015년 닭고기 공급 과잉에도 불구하고 2016년 닭고기 생산량 전년보다 더 증가 전망

- 2014년부터 닭고기 공급 과잉으로 인해 육계 산지가격이 크게 하락하였으며, 하락세는 2015년까지 지속되고 있음. 2016년 7월까지 도계 마릿수 증가세는 지금보다 둔화할 것으로 보이나, 도계 마릿수는 2015년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닭고기 공급 과잉은 201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특히 2016년 북경기 도계 마릿수 감소 가능성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한 종계 생산 연장 및 환우를 피해야 하며,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함

##### □ 업체 간 경쟁 심화로 촉발된 닭고기 공급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 필요

- 일반 경종 농산물은 필요시 정부가 공급 과잉 물량을 수매하거나 폐기처분하여 인위적인 수급조절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나, 축산물은 수매 후 폐기와 같은 정부 개입에 의한 시장격리가 불가능하므로 시장 기구 내에서 자연적인 수급 조절이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일반 계열업체 간의 과도한 경쟁보다는 시장 기구 내에서 가격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업체들의 자율적인 생산 조절을 통한 입식 및 사육 규모의 감축이 필요함
  - 이 과정에서 관련 단체 및 협회 간, 계열업체 간의 갈등과 대립보다는 닭고기 산업 발전을 위한 대승적인 관점에서의 상생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됨
-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유통업체 및 프랜차이즈업체 등 수급조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도 협의회에 참석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공급과잉 해소 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닭고기 소비 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 필요**

- 기존의 소비홍보 광고가 주로 간접광고 방식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직접광고 방식으로 전환하고, 백색육의 차별적인 강점에 대한 중점적인 소비자 홍보가 필요함
  - 닭고기 자조금사업을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홍보비용을 확대, 집중 투입함으로써 소비촉진 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국산 닭고기의 위생 및 품질 개선을 통해 수입 냉동 닭고기에 대한 국내산 닭고기의 우위를 강조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재발 방지 노력을 통해 국내산 닭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발생 가능성 없애야 함
  - 동시에 소비자의 니즈(needs)에 맞는 신제품 개발로 닭고기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위탁 사육농가의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열화사업자의 적극적인 상생협력 노력과 제도적 보완 검토 필요**

- 2013년부터 제정·시행되고 있는 「축산계열화사업의 관한 법률」에 의해 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는 절차와 근거가 마련되어있음. 그러나 분쟁 조정의 최전선에 위치하는 사육농가협회의 지위와 역할이 불분명하고 계열화사업자의 협조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계열화 업체와의 분쟁발생 시 농가협회의 의견이 반영되는지 여부에 대해 응답자 중 57.8%가 농가협회 구성에 계열업체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농가협회 활성화가 되지 않아 의견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함
- 사육농가협회를 대등한 대화 상대로 보지 않고 기업 위주로 제도가 운영된다는 농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나, 실질적 구속력이 없는 사육농가협회가 각 계열 주체별·지역별로 별도 구성되고 활동하면서 계열화사업자와 대등한 관계형성에 어려움이 있음
  - 농가협회의 구성과 활동 범위 등을 분명히 하고, 농가협회 활동을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닭고기 소비 확대를  
위한 효과적  
전략 수립 필요

”

“

계열업체와  
위탁농가의  
상생협력 노력과  
제도 보완 필요

”

- 또 다른 문제는 계열화사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사육농가협의회 구성에 대한 사육농가들의 인식이 낮아 적극적인 참여가 저조한 점임. 따라서 농가의 올바른 인식과 의식개혁을 통해 사육농가협의회를 활성화하여 계열업체와의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설문조사 결과, 농가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48.0%(49명)였으며, 조직 중이 10.8%(11명), 계획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1.2%(42명)였음
  - 농가협의회에의 참석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64.6%가 평균 4.2회 참석했다고 답했으며, 회의가 없거나 거리가 멀어서 참석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35.4%였음
  
- 설문조사 결과 계열업체 간의 과당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손실을 업체가 위탁사육 농가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다는 불만이 매우 크게 나타남. 따라서 농가의 불만 발생에 대한 정부와 계열업체의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 및 대책수립이 필요함



2015년

- 제118호 닭고기 수급 불균형과 파급 영향(우병준, 김형진)
- 제117호 2015년 김장철 채소류 수급 전망과 절임배추 소비특성 분석  
(최병욱, 송성환, 노호영, 윤선희, 이형용, 노수정)
- 제116호 쌀, 김치, 삼계탕 대중국 수출 검역협상 타결과 과제(정민국, 전형진, 김태훈, 우병준, 문한필)
- 제115호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대응전략(정학균, 김창길)
- 제114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농업분야 협상결과와 시사점(이상현, 김종인, 정대회, 안수정)
- 제113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채택에 따른 국제농업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관리  
(이대섭, 최민정, 하경진, 김동훈)
- 제112호 2014년 FTA 국내보완대책 평가와 향후 과제(박준기, 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 제111호 김치의 한·중 검역협상 동향과 수출 확대방안(최병욱, 노호영)
- 제110호 주요 농림축산물의 2015년 추석 출하 및 가격 전망(박기환, 우병준, 김태훈, 최병욱, 장철수, 최지현)
- 제109호 대한민국 성장의 대지, 농업·농촌 70년의 성과와 새로운 도전(송미령, 문한필, 김미복, 성주인, 임지은)
- 제108호 2015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07호 최근 소 값 동향과 전망(이형우, 우병준)
- 제106호 한·EU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시사점(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 제105호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과제(정은미)
- 제104호 할랄 농식품의 한·일 대응 실태와 과제(박기환)
- 제103호 귀농·귀촌 증가 추세와 정책 과제(송미령, 성주인, 김정섭, 심재현)
- 제102호 한·미 FTA 발효 3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한석호, 정호연, 이수환, 윤정현)
- 제101호 2015년 주요 농정이슈(황의식, 이계임, 성주인)

2014년

- 제100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4년 국민인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99호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직불제 개선방향(정학균, 김창길, 한석호, 서강철)
- 제98호 한·중 FTA 타결과 농업 부문의 과제(어명근, 이병훈, 정대회)
- 제97호 발농업의 쟁점과 발전방향(채광석, 김홍상, 이용선, 김경필, 국승용, 문한필)
- 제96호 농식품 수출의 FTA 활용 현황과 과제(어명근, 이병훈)
- 제95호 농업구조 변화와 농가경제, 정책적 시사점(김미복, 박성재)
- 제94호 지역 간 연계협력 현황을 통해서 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과제(송미령, 권인혜)
- 제93호 쌀 관세화 전환과 수입 가능성(김태훈, 승준호, 박동규)
- 제92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4년 추석 출하 및 가격 전망(박기환, 김태훈, 지인배, 최병욱, 박동규)
- 제91호 FTA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와 개선 방향(문한필, 정민국, 남경수, 정호연)
- 제90호 농어촌특별세 운용 실태와 정책과제(박준기, 김미복)
- 제89호 한·EU FTA 발효 3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정민국)
- 제88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과제(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조미형)
- 제87호 소나무재선충병과 방제 정책 과제(이요한, 석현덕, 구자춘)
- 제86호 한·칠레 FTA 10년, 농업분야 이행평가(문한필, 정호연, 김수지, 김영준)
- 제85호 한·미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정민국, 문한필, 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 제84호 AI 발생 및 대응 상황과 방역정책 추진 방향(허덕, 한봉희, 김형진, 이형우, 김진년)
- 제83호 2014년 주요 농정이슈와 정책 과제(황의식, 이계임, 송미령)

2013년

- 제82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81호 중국 농업의 현황과 농정 동향(정정길)
- 제80호 단기소득 임산물의 유통 현황과 주요 과제(정호근, 권오복, 석현덕)
- 제79호 산지축산의 유럽 사례 및 시사점(석현덕, 문지민, 박소희)
- 제78호 2013년 김장철 주요 채소의 수급 전망(서대석, 노호영, 이금호, 이형용, 한은수)
- 제77호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육류 시장에 미치는 영향(허덕, 이형우, 김원태, 김형진, 한봉희)
- 제76호 해외조립투자 확대를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이요한, 석현덕, 한기주)
- 제75호 쌀 직불제의 합리적 운용 방안(박동규, 승준호)
- 제74호 협력적 산림관리 거버넌스 구축방안(석현덕, 박소희)
- 제73호 DDA 농업협상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송주호)
- 제72호 2014년 이후 한육우 사육과 가격 전망(허덕, 우병준, 이형우, 김태우)
- 제71호 지역임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산업 클러스터 육성 방안(석현덕, 안선진)
- 제70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3년 추석 가격 전망(이용선, 우병준, 서대석, 승준호)
- 제69호 농업의 6차산업화 개념설정과 창업방법(김태곤, 허주녕, 양찬영)
- 제68호 주요국의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실태와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방안(정호근, 석현덕)
- 제67호 2013년 7월 북한의 수해 상황과 경제적 피해(권태진, 임수경)
- 제66호 농촌 6차산업화를 위한 농촌관광의 발전 방향(박시현)
- 제65호 유기농업의 기술 수요와 기술개발 로드맵(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64호 농업총조사에 의한 시·군별 농업경쟁력 평가(이병훈, 윤종열, 윤영석)
- 제63호 국민행복을 위한 산림환경서비스의 정책 방향(석현덕, 안선진)
- 제62호 한·EU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문한필, 이현근, 남기천)
- 제61호 유전자변형 작물의 수입 현황과 과제(성명환, 박지연, 정원희)
- 제60호 창조경제,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증진 전략(박준기)
- 제59호 사료 원료의 수입 실태와 수입가격지수 산정(성명환, 윤재웅)
- 제58호 엔화 환율 하락에 따른 농식품 수출의 영향과 과제(박기환)
- 제57호 농어업재해보험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정원호, 최경환)
- 제56호 농촌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과 정책 과제(송미령)
- 제55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54호 산불 관리의 현황과 개선 과제(정호근, 박소희, 석현덕)
- 제53호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국민 지불의사와 지불금액 평가(김용렬, 정학균, 민자혜)
- 제52호 마늘 수요의 변화와 정책 과제(김성우, 노호영)
- 제51호 한·미 FTA 발효 1년, 농업부문 영향 분석(정민국, 문한필)
- 제50호 농식품 수출의 최근 동향과 지원 방안(박기환)
- 제49호 식물공장의 전망과 정책 과제(김연중, 한혜성)
- 제48호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지인배, 허덕, 송우진, 우병준)
- 제47호 2012년 농촌관광 수요와 시장규모(김용렬, 박시현)



- 제46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과제(박현태, 박기환)
- 제45호 축산물 유통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정민국)
- 제44호 국민행복 시대의 산림정책 방향과 과제(석현덕, 장철수, 민경택, 정호근)
- 제43호 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강창용)
- 제42호 도시민이 바라는 농촌정주 공간의 모습(김용렬, 성주인)
- 제41호 농자재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와 시사점(강창용)
- 제40호 소비자의 안심 식탁을 위한 정책 과제(이계임, 이동소)
- 제39호 2013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박준기)

2012년

- 제38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2년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37호 농업수입보장보험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정원호)
- 제36호 식품 수급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황운재)
- 제35호 2012년 김장 수급 전망(서대석, 이형용, 권희민, 이용선)
- 제34호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의 영향 분석과 시사점(송우진, 정민국)
- 제33호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장단기 대응방안(성명환, 한석호, 승준호, 신승희)
- 제32호 도시농부: 도농상생의 가교(김태곤, 허주녕, 김예슬)
- 제31호 외국인이 본 우리나라 농촌관광(김용렬, 윤유식)
- 제30호 농산물 비축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최병옥, 승준호)
- 제29호 2012년 추석 과일 수급 전망(한재환, 신유선, 이미숙, 윤종민, 이용선)
- 제28호 최근 농가경제의 동향과 정책 과제(이병훈, 윤영석)
- 제27호 중국의 FTA 협상 전략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최세균, 전형진, 정대희)
- 제26호 농촌지역 마을회관의 이용 실태와 시사점(김동원, 이병훈, 김광선, 박혜진)
- 제25호 약용식물의 수급 동향과 정책 과제(정호근, 조국훈)
- 제24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실태와 개선방안(국승용)
- 제23호 구제역 이후 양돈산업의 동향과 과제(정민국, 우병준, 김원태)
- 제22호 북한의 가뭄 실태와 영향 분석(권태진, 남민지)
- 제21호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실태와 정책 과제(성주인, 채종현)
- 제20호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시사점(박대식, 마상진)
- 제19호 중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시사점(문한필, 전형진)
- 제18호 미국 BSE 발생이 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17호 한·중FTA와 농업 부문의 대응 방안(어명근)
- 제16호 견고추 가격의 변동성과 시사점(김성우, 한은수, 김명환)
- 제15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와 정책 과제(김광선, 채종현, 윤병석)
- 제14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3호 최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김정섭, 성주인, 마상진)
- 제12호 농작물재해보험의 추진 성과와 과제(최경환)
- 제11호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황의식, 김동훈)
- 제10호 최근의 경지면적 변화 동향과 시사점(채광석)
- 제 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최세균, 정대희)
- 제 8호 최근 소값 하락의 원인과 대책 방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 7호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과제(박대식, 마상진)
- 제 6호 2012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최지현, 국승용, 박시현)

---

## KREI 농정포커스 제118호

### 닭고기 수급 불균형과 파급 영향

---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5. 12. 18.  
발 행 2015. 12. 18.  
발 행 인 최세균  
편집위원 김홍상, 김병률, 박준기, 성주인, 우병준, 문한필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http://www.krei.re.kr>  
인 쇄 (사)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 인쇄사업소  
02-2269-5523~4 [dec5523@hanmail.net](mailto:dec5523@hanmail.net)

---

ISBN: 978-89-6013-783-7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